

봉 행 사

생명의 향기와 감동이 내 안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한 송이 꽃으로 만천하의 봄을 알아가는 것처럼, 웃음으로 대하는 서로의 얼굴에서 우리는 참마음을 봅니다. 이 모두가 희망의 봄소식입니다.

산천초목 모두가 정토(淨土)임을 알아가는 오늘, 우리는 다시금 진제대 종사의 선지식과 지혜의 덕화를 예경하며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순간은 수행자의 행운이요, 신수봉행(信受奉行)을 서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피입니다. 이 공덕으로 말미암아 한 발 한발 내딛는 곳곳이 수행의 도량이며, 평화와 행복이 넘실대는 일상(日常)의 터전입니다. 복전(福田)을 일구어가는 마음과 푸른 혜안(慧眼)으로 널리 앞길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종도와 불자 모두는 지계청정(持戒淸淨), 정진화합(精進和合), 광도중생(廣度衆生)이라는 종정 예하의 교시 아래서 서로의 공덕을 기뻐하며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중생의 밝은 화목과 편안함을 위하겠다는 원력의 발심(發心)이며 백년대계의 희망입니다.

선대(先代)의 가르침은 수승(殊勝)하게 빛나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나의 삶’이 ‘너의 삶’을 진실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지혜로움도 너그러움도 공허한 위선(僞善)이자 걸어 내야할 미혹(迷惑)한 안개일 뿐입니다. 항상 벗어남이 없이 정진의 화두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더 인내하고 내가 먼저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너와 나의 분별을 떠나있는 소중한 성찰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는 길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며, 이를 알아채는 순간으로써 화해의 감동을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거짓 없는 마음, 진실한 실천만이 나라와 국민의 희망이 될 것임을 함께 깨달았습니다. 고통 받는 중생을 향한 한없는 자비

심과 원력으로 헌신하는 지도자야말로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드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우리는 선각(先覺)이자 후견(後見)의 가르침을 예경하여 봉행의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하께서 법으로 밝히신 환한 빛을 따라 참마음에 한걸음 더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모두 부처님의 은혜입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사부대중은 삼보(三寶)를 호지(護持)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둡고 차가운 바다에서 마침내 세월호가 인양되었습니다. 미수습된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묻혀졌던 진실들이 드러나,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함께해온 모든 국민의 마음으로 세월호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반야용선(般若龍船)으로 승화하고, 구고구난 관세음보살의 명호로써 희생자들은 우리의 삶에 지혜의 연꽃으로 환하게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하신 모두의 정성에 감사드리며, 모든 공덕을 이웃과 사회에 남김없이 회향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지혜의 덕화를 공경하는 순결한 마음이 무량한 등불로 밝혀져 일체중생이 더없이 이로워지기를 성심(誠心)으로 기원합니다.

불기2561년 3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